

금호건설 (002990)

기업이슈 브리프 | 건설/건자재

Buy (maintain)

목표주가	14,500 원
현재주가	10,550 원
시가총액	3,865 억원
KOSPI (5/18)	3,173.05 pt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콜라보

Analyst 김세련 _ 02 3779 8634 _ sally.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27.42 억원
외국인 지분율	5.2%
절대수익률 (YTD)	16.2%
상대수익률 (YTD)	5.8%
배당수익률 (21E)	4.7%

재무데이터

(억원)	2019	2020	2021E	2022E
매출액	1,598	1,830	2,046	2,262
영업이익	55	81	110	143
순이익	12	26	74	102
ROE (%)	3.5	7.2	17.0	19.6
PER (x)	35.7	12.5	5.2	3.8
PBR (x)	1.2	0.9	0.8	0.7

자료: 금호건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K-IFRS 연결 기준

Stock Price



연간 영업이익 +35.1% YoY 성장 전망, PER은 5X

—금호건설의 1분기 실적은 고마진 사업부인 주택 매출이 72.5% YoY 성장하면서 영업이익 +32.4% YoY, 컨센서스 대비 +33.8%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 1분기까지 신규주주가 3,822억원으로 연간 가이드선 2.5조원 대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이는 LH 사태 이후로 공공발주가 다소 둔화되면서 기존 발주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 영향이 있음. 분기 주주가 1조원을 넘는 적도 있기 때문에, 입찰 스케줄에 따라 연간 수주 목표치 달성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현재 착공 현장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인력 채용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성장의 Capa가 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 —워크아웃 이전 최대 매출액이 2.4조원이었으나, 지금 기초대로라면 2023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과거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자체사업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마진 업사이드는 더욱 열려있다고 판단함. 내년도 분양 수준을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거나, 올해 7,800세대 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고성장세와 높은 배당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리스크로 PER은 여전히 5X 수준(건설 업종 PER은 8X)

아시아나항공 디스카운트를 멈춰야하는 이유

—금호건설의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은 33.5%이나, 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의 지분율은 11.1%로 감소하게 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해서 현재 해외 법인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속도가 더딘 상황임. 합병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금호건설 보유지분 담보부 차입이 있기 때문에, 상환/차환을 통한 담보 설정 해지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매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즉,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향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6/30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앞둔 만큼 금호건설의 아시아나항공 디스카운트가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